

광주·전남 청년 전북혁신도시 취업문 넓어진다

우선채용 지역인재 범위 광주·전남·전북 묶어 광역화

농촌진흥청 등 전북에 12개 공공기관 연간 700명 채용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전북 혁신도시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가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바뀌어 지난해 12월 말 공포된 데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렸다.

현재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규모는 700여명이며, 광주·전남의 경우 18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전체 채용규모의 5~15%를 지역출신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으나, 광역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광주·전남 출신들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고졸자)도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지역의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전남과 함께 광주·전남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졸·고졸자도 지역인재로 우선채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절차와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채용지역 범위 변경을 위

해 기존 10개 권역을 8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게 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예술위, 베니스 비엔날레서 한국형 도시재생 가능성 조명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주제

어는 ‘융적률’로 정해졌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선보일 한국관의 주제를 ‘융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인 김성홍 예술감독이 총괄하고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는 공동 큐레이터가 기획한다.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리며 참여 국가관은 총감독이 제시한 주제에 따라 전시를 선보인다.

문화예술위는 한국관이 “우리 도시 속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축계 도전과 결과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건축가 작품을 모아 놓은 기존 방식과 달리 큐레이팅 팀이 주제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선정하고 이를 재해석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관은 한정된 대지에 최대의 건물 면적을 요구하는 건축주,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집을 추구하는 건축가, 관련 법과 제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사회적 현상을 다룬다.

융적률(융합·적응)의 의미를 뜻하는 법적 용어다. 성장을 거듭해 온 서울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이자 개인의 욕망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한국관은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인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 보편적 건축을 시작 미술가를 비롯한 다양한 시선과 매체로 조명하고 도시 재생의 가능성도 보여줄 예정이다.

전시를 위해 서울에 있는 약 60만채 건물 데이터를 분석해 왜, 어떻게 융적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등 초대 미술가의 작품도 선보인다. 한국관은 현지에서 5월 26일 개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한콘진, 홍콩 최대 문화벤처단지와 교류 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

〈PMQ〉

문화창조벨트 cel단지 거점

융·복합 콘텐츠 개발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은 지난 2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cel벤처단지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 홍콩 PMQ (Police Married Quarters·대표 빅터 창)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거점으로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하나의 축인 cel벤처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MQ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국의 우수한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el벤처단지는 콘텐츠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빅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개소한 공간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양국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홍콩 산업경제개발부(장관 그레고리 소) 장관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양 부처는 지난 2014년 11월 창조산업 협력을 위한 정부간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MOU를 바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광공사, PMQ는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MOU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왼쪽 두번째)은 지난 23일 서울 cel벤처단지에서 홍콩 PMQ 등과 콘텐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콘진 제공〉

짧은 일정으로 방한한 홍콩의 그레고리 소 장관은 지난 12월말 개관한 cel벤처단지를 시찰하고, 특히 지난 2월 해외 공공미술프로젝트 일환으로 홍콩에서 기획한 LED장미공원을 통해 수백만 명의 방문객과 CNN 등 주요 외신 보도까지 이끌어 낸 cel벤처단지 입주기업 ‘엠허스트’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청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빅 킬러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전자단지로서의 cel벤처단지가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교류·협력의 장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사업화 구현 및 인력양성, 기술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로 조성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 중 3개 거점(cel벤처단지, cel아카데미, 콘텐츠코리아랩)을 운영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K-콘텐츠 물결 일으킨다”

콘텐츠진흥원, 새 로고 발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한콘진)이 24일 새로운 기관 상징(로고) 디자인을 발표했다.

한콘진이 기존의 로고를 변경한 이유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총괄 진흥기관으로서 비전을 담은 디자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로고는 기존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 ▲게임 ▲음악 ▲패션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한콘진의 역할을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했다.

블루오션의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파란색 날개를 로고 맨 앞의 ‘K’자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슬로건 ‘Create NewWave KOCCA’를 새 로고에 포함시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콘텐츠산업을 총괄 진흥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를 새 로고에 담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립전파연구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파연구원, 광주·전남기업 전자파 기술지원

국립전파연구원이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광주·전남 지역 전자파 적합성 기술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24일 발족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광주·전남의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광주 혁신센터, 대학, 협회 등의 전문가 15명 내외로 운영된다.

이들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저감 또는 차단을 위해 회로 변경 등의 대책을 상담해주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벌인다.

전파연구원은 참여 기관들의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산업체들이 기업 육성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자파적합성 기술을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파 적합성이란 전기·전자기기가

다른 장비·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방송·통신 장애를 유발할 만큼 불필요한 전자파를 방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전자제품은 출시 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파연구원은 지난 2014년 7월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고가의 전자파 시험장비를 갖추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에 전자파 시험시설을 개방하고 기술을 지원해 왔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광주·전남 지역에 특화된 자동차 전자파, LED 조명 등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술지원을 집중해 관련 산업육성을 촉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질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물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광주·전남지사

환상의 섬 제주목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제주목리조트

제주목리조트 사당리 신축빌딩 1998-24 (99년 10월 25일)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도움을 직접 수이며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스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얼리버드이벤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상수기 : 온수수기 - 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별라 15원 동나무원룸 1박 + KS or YF소녀타 24시간 79,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사설잔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요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